

지역사회네트웍을 통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성장 발달에 관한 사례연구

임 원 선(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이 현 수(대전중구자활후견기관관장.대전대학교사회복지학과강사)

I.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구자활후견기관에서 개발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이 다양한 지원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까지 프로그램의 발달 과정을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조직에서 프로그램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세 가지 중 사회복지기관 외부의 영향과 사회복지기관의 지도자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중요성을 규명하여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과 사회복지기관 지도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복지의 정의

문화정책의 대상으로서 문화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문화적 생활, 건강한 생활, 쾌적한 여가생활을 실현하는 제반 공공 서비스를 의미한다.

2. 문화복지의 실천

지역문화복지의 실천은 지역밀착형으로 전개되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문화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3.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단위별로 민간사회복지부문의 협의 조정기구인 민간의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간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사회복지조직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첫째, 사회복지기관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에 의해 자극을 받기도 한다.

둘째, 새로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기관의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해 창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도자들의 지역사회 내의 욕구에 대한 인식 했을 때 이루어진다.

셋째, 많은 경우에 새로운 프로그램은 기관 내 일반 실무자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시도해 보려는 의욕 등이 프로그램 창출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III. 연구방법

대전중구자활후견기관의 기획사업인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단”사례를 중심으로, 2006년도 대전발전연구원 신청사업으로 채택되어 진행하고 있는 과정과 2007년도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신청하고 2006년 11월 1일 개최되는 “2006 문화복지포럼”까지의 과정을 문헌연구와 관장과의 면접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1. 문헌연구

2006년 중구자활후견기관이 각 기관에 제출하여 채택된 문화복지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차. 2006실업극복국민재단제안사업(2006. 2)

- 1) 사업명 : 빈곤 예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의 문화적 향유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단 커뮤니티컬처클럽
- 2) 사업목표
 - (1) 저소득 빈곤문화예술인과 실업자 및 차상위계층을 선발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 (2) 문화복지사업단을 조직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봉사활동을 통한 문화적 박탈감 해소는 물론 비영리시설 및 기관의 문예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 (3) 소외계층 및 문화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특성화된 지역사회문화개발·보급과 소지역단위 문화복지 실천을 위한 유관단체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전체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질을 향상함.

2차. 2006 대전발전연구원 제안사업(2006. 6)

- 1) 사업명 : 빈곤 예술인의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소외계층의 문화적 향유를 위한 2006찾아가는문화복지사업단
- 2) 사업 목적
 - (1) 최저생활보장이 필요한 저소득 문화예술인 및 차상위계층 중 예능에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문화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우선 선발하여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 (2)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봉사(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대상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역문화행사)활동을 통한 아동의 자존감향상 및 창의성개발을 유도하고, 비영리기관의 예산부족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유관기관의 교육·문화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 (3) 전체 주민을 위한 특성화된 지역사회문화조성과 문화복지실천을 위한 유관단체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원도심 지역의 문화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3차. 2007 공동모금회제안기획사업(2006. 7)

1) 사업명: 찾아가는 문화복지도우미 사업

2) 사업개요

- (1) 저소득계층 중 예능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문화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나,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빈곤예술인을 선발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한다.
- (2)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복지도우미(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재가복지 봉사센터, 비영리단체, 아동방과후교실, 학교, 지역문화행사)활동을 통한 문화적 박탈감 해소는 물론 비영리기관의 예산부족에 의한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준다.
- (3) 소외계층과 문화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특성화된 지역사회문화개발보급과 원도심지역 문화복지 실천을 위한 유관단체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원도심 문화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면접내용

본 연구자는 관장과의 면접을 수차례 한 결과 위의 사업이 있기까지 다양한 노력과 향후 계획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5년도

- 1) 중구자활후견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문화복지사업단 필요성 제기
- 2) 중구자활후견기관 부설 문화복지사업단 구성(주진홍 단장)
- 3) 문화복지사업단의 타당성조사 및 사업운영 계획준비
- 4) 중구자활주민 문화복지동아리활동 운영
- 5) 문화복지사업을 위한 전문극단 ‘드림’ 창단준비
손튼 와일드 “우리읍내” 작품선정 및 원본 각색, 배우모집
- 6) “우리읍내” 주최(평화의 마을)기관 및 주관(여민회의 11개)단체선정
- 7) 대전지역 문화소외계층 650명 초청 “우리읍내” 공연
“우리읍내” 세아트홀 10일간 공연실시(유료 관객 약1,600명 관람)

2006년도

- 1) (사)실업극복국민재단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단”제안사업선정(2,000만원)

- 2) 극단 드림 2회 정기공연 “선물” 관람객 1,600명 동원
- 3) 대전발전연구원 중점사업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단” 선정(3,500만원 지원)
- 4) 극단 드림 3회 정기공연 사회복지연극 “경로당폰팅사건” 관람객 1,500명 동원
- 5) 2006 원도심 공연문화축제(10월24일-11월4일)
- 6) 2007 대전공동모금회 제안기획사업 선정 “찾아가는 문화복지도우미사업단”
- 7) 2006 문화복지포럼 (11월1일 14시 / 대전시청 세미나실)
 “빈곤예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의 문화적 향유”(예정)

IV. 연구 결과

중구자활후견기관은 2005년 다양한 민.관지역사회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견연극인으로서 실직상태인 연극인을 중심으로 극단 드림을 결성하였다. 이를 발판으로 2006년 (사)실업극복국민재단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단” 제안사업 선정(2,000만원), 대전발전연구원 중점사업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단” 선정(3,500만원 지원), 2007 대전공동모금회 제안기획사업 “찾아가는 문화복지도우미사업단” 선정 되었다. 본 연구 결과 중구자활후견기관의 문화복지프로그램 제안사업이 2006년 한해에만 세 곳에 선정되는 배경에는 첫째, 사회복지조직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사회복지기관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저소득 연극인, 소외계층시민)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지역사회네트워크 참여단체들)에 의해 자극을 받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새로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기관의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해 창출되는데 중구자활후견기관의 관장은 지역사회 내의 저소득 연극인과 소외계층의 욕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결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중구자활후견기관의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성장발달에는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와 기관장의 리더십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발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클라이언트와 유관 단체간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기관장의 적극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V. 결 론

지역사회의 영세한 기관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프로포절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거나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다. 본 연구 사례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네트워크로 결집시키고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담아내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이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프로그램의 발전 뿐만 아니라 기관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 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노력이 새로운 프로그램 자원을 창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실무자의 실험적인 정신이 있는데, 본 사례 연구에서는 기관 실무자의 참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향후 중구자활후건기관의 문화복지프로그램이 보다 성장하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박노동(2006), “지역사회와 문화복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이현수(2006), “지역사회 협력과 생활예술 동아리 활성화”, 문화예술대토론회 준비를 위한 정책워크숍, 문화관광부.
- 임원선(2005), “자활후건기관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사례”, 2005 대전지역자활복지혁신 포럼.
- 임원선(2006), “민간단체의 역할;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역량강화”, 중구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세미나, 대전광역시 중구.
- 정무성(1997),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역사회복지실현을 위한 실천적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 정무성외(2001),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양서원.
- 정선기(2005), “자활후건기관의 문화복지서비스 접근을 위한 실천과정과 전망”, 2005 대전지역 자활복지혁신 포럼.
- Darlow, A. 1996. Cultural Policy and Urban Sustainability : making a missing link,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Vol. 11, No. 3.
- Montgomery, J. 1990. Cities and The Art of Cultural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5(3).